

영어본문문체론에서 규범으로부터의 탈선에 의한 전경화의 수법에 대한 분석

홍 경 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지적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며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0페이지)

영어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학생들이 영어로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표현적효과를 낼수 있는 말과 글 즉 본문을 구사할수 있는 능력과 영어본문을 말하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감수하고 주체적견지에서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수 있게 교육내용을 꾸리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영어본문 문체론을 구축하여 영어리론을 높은 수준에서 풍부히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전경화의 수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본문의 어느 한 특정한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는 문체론적수법이다. 특정한 요소들은 본문에 선택된 모든 어음, 어휘, 문법적수법들과 그것들을 해체하여 문체론적효과를 높이는 수법들 그리고 규범에서 탈선된 문체론적수단과 수법으로 전경화가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규범으로부터의 탈선에 의한 전경화의 수법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규범탈선에 의한 전경화의 수법에 작용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먼저 어음적탈선이 있다.

예: A girl who weighed many oz

Used language I dare not pronoz

For a fellow unkind

Pulled her chair out behind

Just to see (so he said) if she'd boz

토실토실 살이 오른 처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네

몰인정한 어느 녀석

뒤로 당겨놓았지 의자를

홀쩍 떠나 보려고

우의 실례에서 첫행의 oz는 ounce(/auns/)의 략어로서 발음은 그대로이다. 두번째 행의 pronoz는 pronounce(/prənauns/)를 oz에 맞추어 변경시킨것이며 다섯번째 행의 boz도 bounce(/bauns/)를 oz에 맞추어 변경시킨것이다. oz가 ounce의 략어라는 전제밑에 그아래 단어들인 pronoz와 boz의 발음에 /auns/가 들어가게 읽으면 본래의 단어를 찾아낼수 있게 된다. 내쉬법(Nashism)이라는 이 어음문체론적수법은 발음을 변경시켜 꼬리운자음을 맞추어 주의를 끌게 한다.

다음으로 어휘적탈선이 있다.

레: I might have escaped notice, had not my treacherous slate somehow happened to slip from my hand and falling with an obtrusive crash, directly drawn every eye upon me.(석판이 고약하게도 손에서 빠져나와 마루우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지지 않았어도, 그래서 못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끌지만 않았던들 그의 눈에 띄지 않았을수도 있었다.)

우의 실례에서 은유로 쓰인 obtrusive(너무 눈에 띄는, 빼죽 나온)는 원래 좋지 않은 동반적의미를 가지고 아래의 레문에서처럼 시각적표상을 준다.

레: These heaters are less obtrusive and are easy to store away in the summer.

(이 방열기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여름에 건사하기가 쉽다.)

다음으로 문법적탈선이 있다.

레: Father: Where's the cat?

Son: They are in the field.

(아버지: 고양이 어데 있니?)

아들: 고양이들이 밭에 있어요.)

우의 실례에서 집고양이가 어데 있는가를 묻는 아버지의 말에 《It's in the field.》라고 대답하여야 문법규범에 맞는 말로 되지만 아들은 고양이가 어데 있는지 딱히 몰라 거짓말을 할수 없고 또 그렇다고 대답은 안할수 없어서 그때쫘이면 고양이들이 의례히 쥐를 잡으러 밭에 나가기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연히 문법규칙을 어기며 대답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관용어구성요소의 어휘적의미재생이 있다.

레: It was raining cats and dogs and two kittens and a puppy landed on my window sill.(개와 고양이가 지붕에서 싸우듯이 비가 후두둑거리며 쏟아지더니 글썽 새끼 고양이 두마리와 강아지 한마리가 창턱에 떨어지더구나.)

만일 우의 실례에서 두번째 병렬절이 없다면 문체론적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상투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밖에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평이하게 《It rained heavily.》라고 하는것이 문체적으로 더 좋을것이다. 사전에 올라있는 비유적표현 《rain cats and dogs(비가 억수로 쏟아지다)》는 비록 은유적의미를 담고있지만 그대로 사용하면 말과 글에서 어딘가 모르게 형상성이 살아나지 못하기때문에 그 선택이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정황속에서 적절히 사용하거나 우의 레문에서처럼 그 요소들의 어휘적의미를 되살려 나타낼수 있다.

레: Do you mean that the old James should pull themselves up by their own bootstraps?

Do you dare ignore the fact that they are so poor that they could not afford even boots?(제임스로인내외가 자기들이 구두를 당겨신듯이 제힘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요? 당신들은 그들에게 당겨신을 구두조차 없다는것을 무시합니까?)

우의 실례에서 뒤부분이 없으면 관용어 pull oneself up by one's own bootstraps를 그 은유적의미인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다》라고만 이해하고 번역하게 된다. 그러나 성구 pull oneself up by one's own bootstraps는 다음문장의 boots와 작용하여 그 구성요소인 bootstrap의 어휘적의미가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성구에 기초하여 boots는 새로운 문맥적의미 《밑천》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관용어의 해체가 있다.

영어본문들에서는 종종 어휘의미적으로 공고한 결합을 이룬 관용어를 해체하여 구성 성분들의 어휘적의미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표현적효과를 보장하기도 한다.

관용어인 성구의 해체는 두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하나는 성구의 구성요소들을 분리시켜 관용어적의미와 요소들의 본래의 어휘적의미를 동시에 련상시키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동기가 어느 정도 뚜렷한 성구들에서 많이 실현된다. 아래의 실례는 성구 fish in the troubled water(어부지리를 얻다)에 기초하여 전개된 은유이다.

례: The waters will remain sufficiently troubled for somebody's fishing to be profitable.(정세가 너무나 어지러워 그 누군가가 상당한 덕을 보겠군.)

우의 실례에서 fish in the troubled water는 troubled...fishing으로 갈라져 본래의 비유적의미가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성구의 련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비유를 만들어내는 수법이다.

성구 have a short fuse/be on a short fuse는 일이 잘 안되는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즉시 폭발을 낸다는 뜻을 나타낸다. 여기에 기초하여 short fuse대신에 long fuse라고 하면 참을성이 많다는 비유적뜻을 만들어내게 된다.

례: He had a very long fuse. But he needed all of it to suppress his anger.

(그는 참을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수 없었다.)

전경화수법들에서 인체부분이 들어있는 성구를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람의 인체부분이 들어간 성구들의 사용에서 같은 문맥에 다른 인체관련단어가 들어있으면 호상작용하여 성구에 들어있는 인체관련단어의 어휘적의미가 살아나므로 이것을 옳게 가려보아야 한다.

례: The first leg of our journey started in the mouth of the river.

(우리 려행의 첫 구간은 강어귀에서 시작되었다.)

우의 실례에서 죽은 은유 leg(려행의 한 구간)는 역시 죽은 은유로 쓰인 mouth(강어귀)와 충돌하여 그 본래의 어휘적의미가 련상되었던것이다.

다음으로 해당하는 소기능문체에 고유한 언어적수단대신에 다른 수단들의 리용이다.

아래의 기사는 축구려행전에 대한것이나 해당하는 문체에 맞는 어휘적수단들이 아니라 정치계에서 흔히 쓰이는 술어들로 축구구락부들의 순위를 묘사하는 전경화의 수법을 적용하였다.

례: Like Italian politic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legation region alters almost daily. Before Saturday, having come through five unbeaten games, Brighton were contemplating another year in a First Division seat; after it, with their loss compounded by gains for Luton and Norwich, their standing in the polls has fallen sharply.

(이탈리아정계처럼 아래부류로 강급될 위협에 처한 팀들간의 력량관계는 거의 매일 달라지고있다. 토요일전까지 다섯 경기를 패하지 않고 치른 브라이튼팀은 1부류자리를 한해 더 차지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패한데다 루튼팀과 노리취팀이 각각 이기는 바람에 지위가 급속히 떨어졌다.)

기사는 직유로 전체를 마련하고 그에 기초하여 은유로 전개된다. 기사에서는 이팔리

아가 2차세계대전후 1990년대까지 정세가 불안정하여 정부교체가 40여회이상 있는것처럼 런던전에 참가한 팀들의 순위가 매일 달라진다는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체육보도에서는 한 종목에 흔히 쓰이는 어휘를 다른 종목에 사용하여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예: Like Grand National hopefuls, all nine England players cleared their first-round fences at the World Championships in London yesterday, but there are likely to be several fallers today when the going gets tougher.

(그랜드 내슈널상 경마에서 입선을 노리는 선수들인양 9명의 영국선수들모두가 어제 런던에서 진행되는 세계선수권대회 조별예선의 장애물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치열해짐에 따라 오늘 몇명의 선수들이 낙선될것 같다.)

기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영국팀의 예선경기에 대한것이다. 기사는 직유법으로 영국에서 인기있는 경마인 Grand National의 기대되는 경마수들처럼이라고 시작을 빼고 다음부터는 경마에 쓰는 어휘들인 clear fences(장애물을 넘다), faller(말에서 떨어진 선수), the goings gets tougher(경마에서 말들이 점점 힘들어하다)로 은유적표상을 주고있다.

다음으로 자유직접전달법과 자유간접전달법이 있다.

자유직접전달법은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본문에서 등장인물들의 속생각을 묘사하는 수법이다. 이 전달법은 기본적으로 직접전달법의 형태이지만 말로 옮기는 전달법의 도움이 없이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붙어있으며 현재시칭으로 과거의 사실을 묘사한다. 그렇다고 하여 소설 등에서 현재시칭으로 진술을 생동하게 하는 문법적수법과 같은 수법은 아니다.

예: A fly kept buzzing around, occasionally trying to sit on me! I brushed it off. It came back. Keep calm! Wait until it feels safe. There! Got it! On my hand was a disgusting flattened fly, oozing blood. I wiped my hand on the grass. Now I can relax.

(파리 한마리가 앵앵 맴돌며 이따금 내 몸에 앉으려고 하였다. 쫓아버리면 또 날아들었다. 가만 있자! 맘놓을 때까지 기다리자. 요놈! 잡았다! 파리가 손바닥에 납작하게 짓뭇개지고 피가 나왔다. 손바닥을 풀밭에 훑치었다. 자, 이제 좀 편하겠네.)

자유간접전달법도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속생각을 전달문이 없이 같은 과거시칭과 3인칭으로 묘사하는 수법이다. 조선어로는 과거시칭을 현재시칭으로, 3인칭을 1인칭으로 옮긴다.

예: So that was their plan, was it? He well knew their tricks, and would show them a thing or two before he was finished. Thank goodness he had been alerted, and that there were still a few honest people in the world.

(그래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란 말이지. 놈들의 계획을 잘 알았으니 죽기 전에 한두가지 보여줘야지. 미리 알았으니 참 다행이다.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이처럼 전경화의 수법은 어음문제론, 어휘문제론, 문법문제론 등에서 개별적으로 취급한 내용을 본문속에서 종합하여 호상련관속에서 실용성있게 터득하게 한다.

우리는 외국어본문들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문제론적수법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풍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